

‘동서통합지대’의 중심 광양이 뜬다

동서통합지대 조성사업...광양만권 주요 추진 사업은

영·호남 모두 잘 살 수 있게 국제해양관광지대 개발
미래형 기능성 화학소재·해양플랜트 클러스터 구축
섬진강 문화 회랑 지대 조성하고 동서 케이블카 설치
한광옥 국민대통합위원장 방문 “동서통합의 성공모델로”



지난 12일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을 방문한 한광옥 국민대통합위원장과 위원들이 동서통합지대 조성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정부가 국민대통합을 위해 섬진강 일대 영·호남 지역을 개발하는 동서(東西) 통합지대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광양시가 뜨고 있다. 이 기본계획에 따르면 광양지역에서 중요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이다.

특히 광양 시민 중 영남 출신이 25%에 달해 정부가 섬진강 일대에 조성하는 동서통합지대 효과를 바로 볼 수 있는 지역이라는 점도 중요하다.

대통령 소속 국민대통합 위원회 한광옥 위원장과 임향순, 김현성, 김준용 위원들이 지난 12일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을 방문해 동서통합을 논의했다. 이들은 “광양만권을 동서통합의 성공 모델로 만들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 위원장은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동서통합의 선도모델로서 반드시 성공적인 사업이 추진될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광양 방문에 이어 하동 화

등도 추진한다.

또 광양만 일대를 문화·관광 중심지대로 조성하고, 지역의 인프라를 활용한 글로벌 관광기반도 구축하게 된다.

이 밖에 광양만 항만시설을 보완해 관광루트를 개발하고, 해상관광 활성화를 통해 영·호남이 잘 살 수 있는 구조를 만든다는 복안이다.

◇광양~하동, 문화예술 회랑 연결 =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내에는 기능성 화학소재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광양~하동의 문화예술 회랑지대를 연결하는 ‘동서통합대교’ 건설 및 구 남해고속도로 섬진강교도 보수 후 재개통한다.

이에 광양시는 관련 국비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광양시는 인근의 하동군과 함께 ‘동서 통합대교’ 건설, 섬진강 뱃길복원 및 수상레저 기반조성 사업이 실시될 경우를 하고 있다. 또 섬진강 문화 회랑(回廊)지대 조성(하동군), 광양만권 미래형 소재산업 거점육성 사업(광양시)이 용역에 착수했다.

이 밖에 ▲경관보전 및 생태관리 ▲‘섬진강 하늘길’ 동서 케이블카 설치 ▲문화예술스포츠 교류협력 강화 및 시설개선 사업 등이 타당성 검토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앞서 지난 3월 광양시·하동군은 동서통합지대 조성사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공동으로 정부에 건의하기로 합의했다. 또 섬진강 양안(兩岸)의 생활체육 시설과 같은 기반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한다는 협약을 체결했다.

특히 1500억원이 투입되는 광양만권 미래형 소재산업 육성을 현 정부 지역대선 공약사업에 포함돼 기능성 화학소재 클러스터 구축에도 관심이 높다.

이희봉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장은 “우수시책을 개발하고 국가별 유치전략을 세워 동서 통합지대 조기 개발과 추진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등도 추진한다.

또 광양만 일대를 문화·관광 중심지대로 조성하고, 지역의 인프라를 활용한 글로벌 관광기반도 구축하게 된다.

이 밖에 광양만 항만시설을 보완해 관광루트를 개발하고, 해상관광 활성화를 통해 영·호남이 잘 살 수 있는 구조를 만든다는 복안이다.

◇광양~하동, 문화예술 회랑 연결 =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내에는 기능성 화학소재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광양~하동의 문화예술 회랑지대를 연결하는 ‘동서통합대교’ 건설 및 구 남해고속도로 섬진강교도 보수 후 재개통한다.

이에 광양시는 관련 국비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광양시는 인근의 하동군과 함께 ‘동서 통합대교’ 건설, 섬진강 뱃길복원 및 수상레저 기반조성 사업이 실시될 경우를 하고 있다. 또 섬진강 문화 회랑(回廊)지대 조성(하동군), 광양만권 미래형 소재산업 거점육성 사업(광양시)이 용역에 착수했다.

이 밖에 ▲경관보전 및 생태관리 ▲‘섬진강 하늘길’ 동서 케이블카 설치 ▲문화예술스포츠 교류협력 강화 및 시설개선 사업 등이 타당성 검토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앞서 지난 3월 광양시·하동군은 동서통합지대 조성사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공동으로 정부에 건의하기로 합의했다. 또 섬진강 양안(兩岸)의 생활체육 시설과 같은 기반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한다는 협약을 체결했다.

특히 1500억원이 투입되는 광양만권 미래형 소재산업 육성을 현 정부 지역대선 공약사업에 포함돼 기능성 화학소재 클러스터 구축에도 관심이 높다.

이희봉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장은 “우수시책을 개발하고 국가별 유치전략을 세워 동서 통합지대 조기 개발과 추진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다 함께 걸어요, 동네 한 바퀴”

광양시, 9개 마을 대상 건강걷기 시범마을 선정 운영

광양시가 관내 9개 마을을 대상으로 ‘다 함께 걸어요! 동네 한 바퀴!’ 건강걷기 시범마을을 선정해 운영한다. 시범마을은 ▲다압면 다사마을, 원동, 평촌, 향동 ▲진월면 대리 ▲봉강면 신촌, 구서, 골약동 하포 ▲진상면 어치마을 등이다.

광양시 보건소는 시범마을별로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걷기코스를 개발하기 위해 소셜 힐링캠프(Social Healing Camp)를 운영하고 있다.

시 보건소는 지난 7월 말 다압면 다사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걷기코스 개발과 걷기요령 시연교육, 프로그램 운영 전 체력측정 등을 마쳤다. 이어 이달 말까지 나머지 마을을 대상으로 힐링캠프를 진행해 건강걷기 안내 표지판과 100m 간격의 거리안내 표지목 설치 등 건강걷기를 위한 사전 준비를 마무리 한 후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본격적인 건강걷기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다문화가족 80명 초청 도자기공예 등 문화체험 행사

광양시에 거주하는 결혼이주여성들과 자녀들이 문화체험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사진)

광양시는 지역의 문화자원을 활용해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지난 12~13일 옥룡면 도선국사마을에서 다문화가족 80명을 초청해 도자기공예와 가방 천연염색, 보리떡 만들기 등 다채로운 문화체험 행사를 가졌다.

말 2명과 함께 참여한 필리핀 출신 알렛 피이클레(38) 씨는 “도자기 공예와 보리떡 만들기 등 지역문화를 직접 체험해 보

니 지역에 더 정감이 가고,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정현복 시장은 행사장을 직접 방문해 다문화가족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다문화가족의 한국문화 조기 적응을 위해 적극적으로 시책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광양시는 다음달 13일 광양 실내체육관에서 ‘아름다운 소통, 함께하는 문화’라는 슬로건으로 ‘2014 다문화 페스티벌’을 개최할 예정이다. 참가문의(061-797-6832)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정부 조달물자계약 업체

모든 가구가 한곳에!

취급품목
사무용
교육용
의료용
주방가구
아파트실내가구

(주)엔에스퍼니처 광양지사
T (061)793-7704 H 010-3114-3063
웹하드 ID : gane82 / PW : 1111
광양시 중앙로 494-1 (마동정수장 앞)

가치와 사람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회사
사회와 함께하는 회사

저희 법인은 기존의 보상 및 담보평가는 물론이고 부동산투자자문, 개발타당성분석, 기업가치 및 부동산 증권화에 수반된 평가 등을 수행할 수 있는 해당분야의 전문 감정평가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전문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위하여 기업평가연구원을 부설기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등의 전문가격자와 학계의 저명한 교수들과도 NET-WORK를 구성하고 있으며, 국내외의 금융기관 및 부동산회사들과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 지정 대항감정평가 법인
자산재평가 전담팀 운영
공정 가치평가본부 02-2051-2800

(주)가람감정평가법인 호남지사 T.(061)375-6540 F.(061)375-6542